

한국 사회혁신의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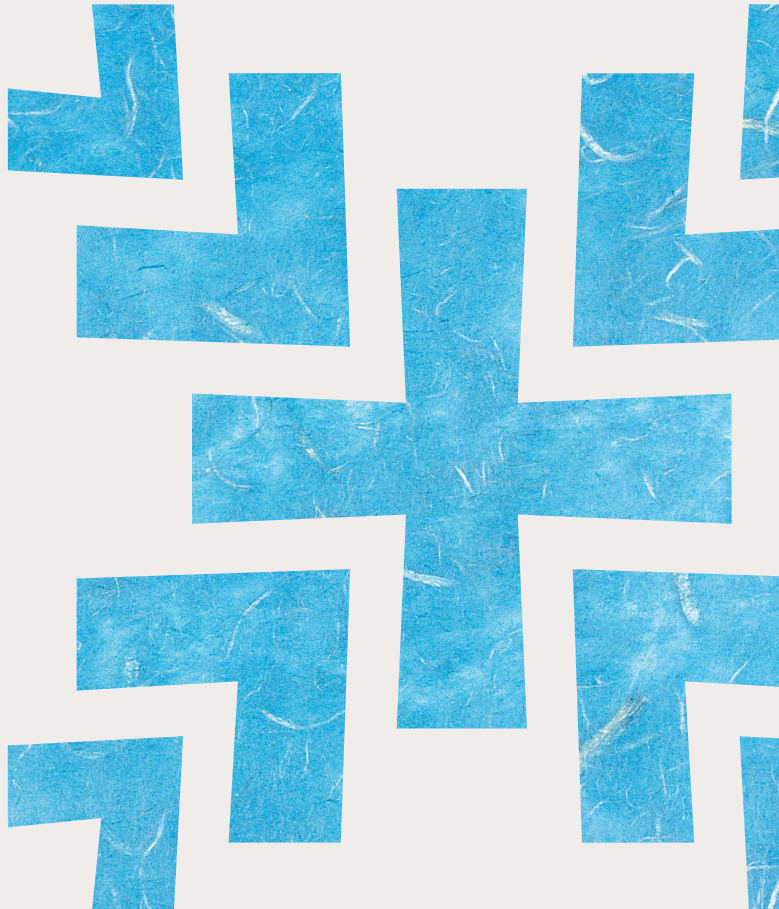
목차

1. 한국 사회혁신의 실용적 정의
2. 한국 사회혁신 연구의 주요 관찰
3. 결론: 한국 사회혁신의 특징
4. 후속연구 방향

작성 |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연구팀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A guided Tour of Social Innovation in South Korea, 2011,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와 한국 사회혁신 사례연구(2013,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개요

이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 ① 문헌 리뷰 ②관계자 인터뷰 ③ 결과 분석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팀은 문헌에 소개된 사회혁신의 정의, 여타 선진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역할, 사회혁신 발전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다.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사회혁신의 여섯 가지 측면을 정리하였다.

- **사회적 요구** | 사회혁신은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그러나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요구가 특정 사회혁신 사례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사회혁신 프로그램** | 사회혁신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를 해결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혁신적 요소와 운영방식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떤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본다.
- **사회적 효과** |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결과는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나타난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구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혁신은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사회혁신 사례가 지금껏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 **사회혁신의 여정** | 사회혁신은 ‘빅뱅’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결과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연구는 각각의 사회혁신 사례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기술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된 여정을 소개한다.

① 아이디어 제안과 시범모델의 시작 ②지속가능한 모델의 실행 ③ 사회혁신 모델의 확산

- **당면 과제**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회혁신 사례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개된 모든 사례들은 한국에서 보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규모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각 사례들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도전 과제들

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미래 비전** | 각 사례들은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높은 목표를 잡고 있다. 각 사례별로 관계하고 있는 사회혁신가들이 꿈꾸고 있는 흥미로운 미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연구는 그들의 미션과 비전을 인터뷰와 문헌을 통해 정리했고, 그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곱 개의 대표적인 한국 사회혁신 사례를 선택하여 위에 기술된 여섯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자체가 확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결과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사례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연구조사를 하였다. 채택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 희망제작소
- 시민창안 프로그램 (희망제작소)
-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희망제작소)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씽크카페
- 하자센터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 한국 사회혁신의 실용적 정의

아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이다.(표1-1) 연구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일곱 가지 사회혁신사례를 살펴 보면서 한국에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정의되고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국내 사회혁신주체들의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2)

시작	사회적 필요, 시장 실패, 사회적경제의 도전들, 과거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 사회 문제, 주요 목적은 사회적인 것, 사회적 웰빙이 목표
----	---

방법/프로세스	새로운, 창의적인, 개선, 커뮤니티, 변혁, 혁신, 참여, 변화, 유연성, 상호작용, 연대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발전
결과	규모/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된,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한 이동,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실천, 기존 규칙의 변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변화, 권력 흐름의 변화, 전체로서의 사회,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

[표 1-1]

시작	• 정부, 기업 등이 해결책 제시에 실패한 사회시스템 관련 문제들의 새로운 해법 필요 •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문제 있다거나 정부의 주요 사업들 사이의 간극들을 매워 줄 수 있는 사업들이다. 기업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전 희망제작소 사회경제센터 센터장) • 사회라는 것이 없다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만 믿다가는 다 죽겠다는 위기감으로부터, 넓은 의미에서 사회운동, 집합적인 활동의 혁신이 변화의 와중에 부각된 것이고, 재발견된 것 (홍일표, 국회의원 보좌관, 전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센터장) • 혁신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현실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면 절실함과 필요가 맞아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효관, 현 서울시청년일자리 허브 센터장, 전 하자센터 센터장)
방법/프로세스	• 혁명, 개혁과는 달리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 • 탈계급성을 갖고 있고, 리더라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은 운동 (유시주) • 집단적이고, 집합적이고, 개인(보통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모아 혁신에 연결한 것 (홍일표) •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 (문진수) • 어떤 만들어진 장(예: 사회창안)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잡아서 실천하는 시민참여의 방법 (이성은, 다음세대재단 연구원,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 •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판을 만드는 것 (이성은) • 지역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는 코드를 가지고 코디네이팅과 서포팅을 하는 방식 (이성은) • 영역을 중계하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대화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이성은) • 섹터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과 다른 대안적인 방법론을 내세우는 것 (남경아, 현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센터장, 전 수원시평생학습관 팀장) • 시민참여, 상상력, 새로운 시도 (이성은) • 독특한 아젠다. 아니 아젠다가 독특한 것 보다는 접근방법이 다른 것, 즉 남들이 소홀히 하고 있거나, 남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사회혁신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혁신적이어야 한다. 결과만 혁신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고, 성취 가능한 것이 사회혁신이지, 너무나 이상적인 것은 사회혁신이 아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다. (박원순)

방법/프로세스	• 사회혁신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을 얘기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 반대자의 논리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서 그 사람들도 함께 사회혁신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존에 혁신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적으로 비판자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뭐냐고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사회혁신이다. (박원순)
결과	• 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제도화를 위한 의식의 변화. 즉, 정치프로세스의 변화를 포함 (송창석, 현 희망제작소 부소장) • 가치의 재발견 역할을 하면서 그 가치가 실제로 새로운 방법의 실행을 견인하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고르게 주도록 하는 것 (한순용, 현 푸르메재단 대외사업실장, 전 희망제작소 회원재정센터장)

[표 1-2]

이를 통해 연구진은 한국 사회혁신의 실용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었다.

사회혁신은 (이전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사회적 문제를 풀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웰빙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다. 사회혁신은 창조적이고 새롭고, 상호작용하면서 변혁을 추구하고, 유연하며 참여의 방식으로 발전한다.

사회혁신은 측정 가능한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해내고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이동을 한다. 또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충족하지 못했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한다. 결과는 조직내부로 번져나가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시스템/권력 흐름의 기본적 규칙/믿음을 변화시킨다.

2. 한국 사회혁신 연구의 주요 관찰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사회혁신의 전체적인 동향을 조명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이 연구로부터 후속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주요 지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는 일곱 가지 사회혁신 사례의 분석을 위해 앞서 소개한 사회혁신의 여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세부 질문을 통해 조사 분석을 진행했다.

요소	세부 질문 1	세부 질문 2
사회적 요구	효과적 수요가 있나?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효과적인 수요로 이미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나?
		나타나지 않은(숨어있는) 사회적 요구였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수요가 될 수 있었나?

사회혁신 프로그램	무엇이 혁신적이었나?	
	효과적 공급이 있었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였나?
	꿀벌과 나무가 있었나?	쉽게 실현과 복제가 가능한가?
		꿀벌은 누구인가? (행위자: 사회혁신가)
		나무는 누구인가? (인프라: 법, 관련 제도, 자금 등 환경)
	섹터 간 경계를 허물면서 출현하였나?	
사회적 효과	사회혁신사례의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간접적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사회혁신 여정	발전과정 6단계 중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나?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속가능한 요소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확산되었나?
	발전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극복한 과정이 있었나?	확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
당면과제		
미래 비전		

사회혁신 여섯 가지 요소와 관련한 세부 질문

아래는 연구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사례들을 위의 여섯 가지 요소들을 통해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과 시사점이다.

사회적 요구

연구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사회혁신 사례는 ①사회적 경제(풀뿌리 경제) ②지역경제 활성화 ③경직된 교육 ④질적인 시민참여/이슈 제기 ⑤고령화 사회에 나타난 은퇴자 문제 ⑥실천적인 대안 제시라는 여섯 가지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대표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요구는 아래처럼 공통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이다.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농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틀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접근한 사례이다. 하자센터는 경직된 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청소년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와 연계해서 대응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 시민사회나 정부, 민간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누구보다도 이런 새로운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으로 시니어사회공헌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시민창안프로그램과 씽크카페는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은 사회혁신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다.

전통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수의 시민과 함께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회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제 방식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시민단체나 정치적인 집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시민은 투표에 참여하는 식의 단순 참여를 넘어 질적으로 확장된 참여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나 도구들은 새로운 사회혁신의 주인공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시민창안프로그램과 씽크카페는 공통적으로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플랫폼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형 싱크탱크를 표방하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즉, 사회창안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실천적이며 실용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사례	사회적 요구/ 문제	사회적 요구/문제 유형
희망제작소	실천적인 대안 제시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
시민창안프로그램	질적인 시민참여/이슈 제기 실천적인 대안 제시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
시니어사회공헌센터	고령화 사회에 나타난 은퇴자 문제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 요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고질적 문제
씽크카페	질적인 시민참여/이슈 제기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
하자센터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고질적 문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본주의 경제로 인한 지역 경제와 풀뿌리 경제의 붕괴/사회적 경제의 요구 (풀뿌리 경제)	고질적 문제

일곱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사회적 문제들은 이미 사회적인 수요가 존재하여 이를 반영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농업농촌 공동화 문제, 지역경기 침체,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한 지역공동체, 풀뿌리 경제의 붕괴 등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희망제작소가 시도한 사례들은 대부분 사회 내 잠재적인 수요는 존재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기초한 경우가 다수이다. 희망제작소의 설립 자체 역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시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험하는 싱크탱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희망제작소는 잠재된 수요에 기반을 두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며 가시적인 사회적 수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반면 원주나 하자센터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두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 원주지역 내 협동조합들의 문제를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었다. 하자센터의 경우도 탈학교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진입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시작하게 된다.

사회혁신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사례들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사례를 사회혁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든 사례의 핵심 요소는 ‘참여’이다. 두 가지 사례(사회창안 프로그램과 씽크카페)는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이며, 그 외 다섯 가지 혁신 사례 모두가 ‘공동제작 (Co-Production 혹은 Co-Crea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회적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퇴직자들, 하자 센터의 청년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완주 주민과 원주협동 사회경제네트워크의 주민 모두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제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시민창안프로그램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만을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라고 보았고,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은퇴자들을 사회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NPO 자원으로 바라보았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방치되었던 지역자원과 지역민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자원으로 보았다. 하자센터에서는 기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거부한 탈학생을 문제아가 아니라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보았다.

셋째, 협력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혁신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하자센터의 사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다른 사회혁신 그룹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협력은 물론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자센터는 해외의 청소년 관련 혁신 프로그램들, 여타 청소년 관련 사회 프로그램과 단체들의 교류를 주선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농촌 지역 문제와 청소년 문제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원천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풀뿌리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인 수준이나 주요 섹터 간 협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제작소는 거버넌스라는 방식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사회혁신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창안프로그램에서는 정책화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섹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설립 시기부터 지방기업들의 참여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넷째, 중재자(Coordinator)로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떠오르고 있다. 사회혁신이 한국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접근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몇몇 시민 단체들은 사회혁신의 촉진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희망제작소,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하자센터, 씽크카페에 소개된 더 체인지) 사회혁신가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플랫폼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열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종 정보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

하기도 한다.

또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 기금을 배분하거나 기업이나 투자 은행들과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장과 지원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하자센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의 정책 형성을 위해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희망제작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부상은 기존의 지원조직인 정부나 기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나타나는 극단(Radicality)성이다. 특히 씽크카페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핵심요소를 극단화함으로써 혁신성을 높이고 있다.

씽크카페의 경우, 기존의 조직 운영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움직이며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조합과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공유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그 협동의 방식을 극단화하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서로를 위해 출자함으로써 재정적인 건전성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서로 이사회 임원이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올 때 서로가 협동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펴본 일곱 가지 사회혁신사례들은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혁신적 요소를 통해 사회적 요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2백여 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 자신들이 토론하고 싶었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씽크카페의 컨퍼런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만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씽크카페가 사회적 수요에 잘 대응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사회혁신모델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은 복제를 통한 확산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사회혁신모델의 효과적인 공급 여부를 복제와 확장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제와 확장성은 환경의 성숙도와도 관련이 된다. 즉, 사례 그 자체는 쉽게 복제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회 환경이 복제를 지원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일곱 가지 사례의 경우, 모델 자체가 복제되거나 확장된 경우는 사회창안대회, 시니어

사회공헌센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씽크카페이다. 단, 그 모델이 그대로 복제되거나 확장되었기 보다는 핵심적인 방법론이 복제되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창안대회의 경우,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으로 복제되었으며, 그 외에도 고양시, 익산시의 시민단체 등은 사회창안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회창안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정책화되어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유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하자센터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활용하거나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혁신학교 내 혁신 프로그램에 하자 작업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변형,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창안대회나 시니어사회공헌센터 그리고 하자센터의 경우, 모두 정부 정책과 지원이 함께 해서 복제 확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씽크카페의 경우, 처음 설계할 때부터 복제와 확산을 유념하고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씽크카페는 빠른 속도로 복제와 확산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오픈, 공유, 참여가 쉽고 편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1) 수직적인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를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 멤버가 중심이 되어 수평적 조직 구조를 형성했다. (2) 온라인을 통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모임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다. (3) 일정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되는 한 언제나 씽크카페, 오픈 컨퍼런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만든 오픈 컨퍼런스를 시도했다. (5) ‘모떠꿈’을 통한 방법론 공유 및 개발을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시도해 퍼실리테이터들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씽크카페의 경우를 제외하자면, 사회혁신사례나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복제 확산되는 과정은 결국 현장에서 활동하는 꿀벌과 이를 지원하는 나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효과적인 공급이 환경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이 환경의 성숙도는 다른 아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꿀벌은 얼마나 그 지원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꿀벌은 참여자이자 복제자이며, 나무는 이를 지원하는 재단, 정부, 기업들로서 정책을 통해 혹은 보조금이나 기금,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꿀벌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꿀벌과 나무의 관점에서 일곱 가지 사례를 보면 꿀벌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나무의 입장에서는 꿀벌의 활동을 존중하면서 사회혁신모델을 확장시키고 지원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는 특징

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경우,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개념은 확산되었으나 소셜 네트워킹 등의 중요 프로그램은 확산되지 않은 채 대부분 단순한 강연방식으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나무가 꿀벌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꿀벌 자체를 교육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지원 환경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사회적기업과 같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혁신적 환경 자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기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꿀벌과 나무의 역할은 섹터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일곱 가지 사례들은 모두 섹터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프로그램과 시니어사회공헌센터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하자센터,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모두 시민섹터 혹은 제3섹터 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부, 학교,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 씽크카페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는 풀뿌리 협력과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 지원구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씽크카페가 정치적이고 사회적 이슈를 계속 진행하고,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지방정부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결국 섹터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효과

이 연구는 각각의 사례가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와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혁신 모델이 한국 사회 내 주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사례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아직은 적용방법의 지속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꼭 달성해야할 주요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편 각 사례가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효과를 살펴볼 때,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변화는 분명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례들은 거버넌스의 중요성, 풀뿌리 사회적 경제 블록의 형성, 더 많은 사회혁신주체들의 등장, 사회혁신 관련 정책들의 형성 등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다뤄진 사회혁신 사례들이 형성되고 발전되

는 속도보다, 사회혁신은 한국 사회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한층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혁신의 여정

사회혁신의 진행과정은 크게는 세 단계로, 자세하게는 여섯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각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앞서서 일곱 가지 사례 중 씽크카페를 제외하고는 초기부터 이러한 사회혁신 발전과정을 인식하고 설계된 경우는 없다. 이런 경우, 프로토타입 설계와 기획이 효과적 수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이후의 단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사회혁신사례는 진행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감당하고 준비하여 계획하고 설계할 때, 더 효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일곱 가지 사례들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음 단계를 위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점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희망제작소의 경우, 정치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 구조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씽크카페처럼 확장성과 복제성을 염두하고 시작한 사례의 경우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써 조직화와 재정적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시스템 변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사회혁신 지원구조가 다양하지 않고, 지원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간지원조직 등이 충분히 힘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확산되는 경우에는 성공사례를 확산하기보다는 정책화하기 쉬운 부분만 복제되면서 기존의 혁신성이 사라지거나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크게 3가지 사회혁신의 진행과정에 따라 일곱 가지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1) 사회혁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사례는 모두 혁신가 한 사람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혁신가 개인의 아이디어로는 사회혁신이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혁신가들은 열정적인 지원가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간다.

사회혁신가들은 통상적으로 뛰어난 관찰자들이다. 주의 깊게 문제를 관찰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와 더불어, 이들 사회혁신가들은 종종 해외의 사회혁신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에서 영감과 자극을 받아 왔다.

즉, 동시대에 어디에선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혁신 사례들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해보고 발전시켜보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전 상임이사, 씽크카페 더 체인지의 하승창 대표, 하자 센터의 연세대 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 등).

(2) 사회혁신은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일과 사회혁신 모델의 콘텐츠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왔다. 많은 사례들이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었다(사회창안 프로그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하자센터). 또 다른 사례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례나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동향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형적으로 중앙 정부는 만성적인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많은 양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시니어사회공헌센터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소개된 사회혁신 모델은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모델로 선택되어, 유사한 사회혁신 모델의 운영 단체들에게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지원금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혁신 모델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식은 바로 사회혁신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이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하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또 다른 중요한 접근법은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인 운영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모금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씽크카페 역시 정기적인 후원 모금을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각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본 일곱 가지 사례는 어떻게 재원을 다양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희망제작소	후원프로그램 확대와 국제 재단이나 기업과 협력 사업을 하는 등 재원을 다양화함
하자센터	서울시 위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만, 그 외 재단이나 정부 기관과 별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완주군과 3년 계약 외에 중앙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신용협동조합의 중심적 역할, 협동조합 간 상호 출자
싱크카페	아름다운재단 기금 지원, 크라우드 펀딩으로 책자를 출판, 수익창출을 위해 카페 오픈

사회혁신 사례들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사회혁신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혁신 사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특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많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일회적인 개발과 운영으로는 당면한 사회 문제들의 진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사회혁신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시의 적절한 때에 진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한다. 하자센터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두 가지 훌륭한 사례들은 그들의 오랜 운영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혁신 프로그램 진화의 필연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3) 사회혁신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가

일곱 가지 사례 중 그 어느 사례도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적절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 리더 육성, 중재자 역할의 기관 설립, 사회혁신 프로그램 지원 펀드 조성, 사회혁신 모델을 지원하는 법령 제정과 정책 마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참여 등이다. 그 중의 몇 가지 전략들은 이 보고서에 각 사례별로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사례가 보여주는 사회혁신 확장전략들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규모 확장을 위해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를 확장시키는 특정한 방법들을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통한 확장이나 사회적 기업의 지역 지점을 시작하는 것) 적용하기 전에 사회혁신 확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다.

사례에 따라 제시된 전략의 실천을 시작한 예도 있으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

워크 등) 아직은 명확히 전략을 실천하고 전국적 규모의 성공적인 확장을 보여준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모델의 복제와 확장을 위한 일부의 노력으로는 시민창업프로그램이 초기에 고양, 익산 등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나, 씽크카페가 제공하는 매뉴얼 공유, 브랜드 공유, 방법론 공유 등으로 오픈 컨퍼런스가 가능하도록 도운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하자센터 내부에서 인큐베이팅 된 벤처들이 복제되고 반복된 경우가 있다.

당면 과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사회혁신 사례들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혁신의 다른 측면들, 즉 사회적 영향, 사회혁신의 여정들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취약한 재정 구조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의 부재
- 사회혁신 활동가 사이의 취약한 협동 네트워크
- 사회혁신 사례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 사회혁신 육성을 위한 법적 시스템과 정부 정책의 미비
-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는 부족한 사회적기업 시장의 규모
- 사회혁신 사례 문서화 부족과 그로 인한 일반 대중 속 사회혁신 전파의 부족
- 사회혁신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더와 중간급 관리자의 부족
- 사회 문제의 급속한 변화
- 사회혁신 모델의 미성숙

미래 비전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혁신 사례들은 일정 지역과 대상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공통적인 특징은 지속가능성을 획득하는 것과 전국적인 확산이다. 지속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후원 확대와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려고 하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경우 독립적인 기금 형성을, 씽크카페는 크라우드 펀딩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혹은 활동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전국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

고, 사회창안프로그램이 전국사회창안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창안허브가 되고자 하고, 하자센터는 청소년의 창의 허브가,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독립재단설립을 제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3. 결론: 한국 사회혁신의 특징

이 연구는 대표적인 일곱 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혁신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혁신은 시민(사회)주도적이다.

시범 연구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사회혁신사례는 모두 시민사회(혹은 시민섹터)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발전시킨 사례다. 다만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시도했다는 의미이지, 모든 일을 시민(사회)섹터가 홀로 추진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시민(사회)섹터는 정부와 기업과 협력해 혁신을 시도해 나갔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사회혁신과 관련한 정책이나 활동을 시작했지만, 부분적인 활동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기에는 어렵다.

둘째, 한국의 사회혁신은 아직 도입단계이다.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으며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 더불어 사회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떠나 사회혁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나 모델 또한 스스로를 사회혁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다. 또한 사회혁신의 분야로 일컬어지는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일부 영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나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모델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적기업과 같이 정부의 지원이 큰 경우도 지속가능성을 획득하고 복제와 확산을 이룬 성공적인 사회혁신 모델을 찾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범연구에서 다룬 일곱 가지 대표적인 사회혁신 사례도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확산과 복제를 통한 사회변화보다는 기관별 사업 안정화에 집중되어 있다. 즉, 한국의 사회혁신은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아직은 초기상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만들기와 같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조차도 사회혁신모델이 유기적으로(organic) 발생하고 발전하도록 돕기보다는 지원기관의 요구에 맞춰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회혁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회혁신모델이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의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전략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은 각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중 세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① 재정적 지원의 경우, 다양한 자원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혁신모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시장의 투자, 기부 혹은 재단의 보조금 심지어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시민 개개인이 사회혁신모델의 재정적 지원자가 되는 것까지 다양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사회혁신은 자랄 수 있다.

②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사회혁신가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좋은 지원환경은 혁신가들(꿀벌)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킨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모델을 새롭게 복제 적용하는 혁신가들과 함께 이를 지원환경과 연결해주는 연결자로서 중간지원자가 필요하다.

③ 끝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할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창조적인 복제를 해내는 꿀벌들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의 방법론과 도구들이 더욱더 손쉽게 공유되는 온, 오프라인의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다.

4. 후속연구 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제시한 일곱 가지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에야 명확해 질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회혁신의 특징들은 한국 사회혁신만의 특성을 정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사회혁신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 특정 유형의 사회 문제들이 있는가?
- 사회혁신의 사회적 효과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 사회혁신의 혁신적인 특성(과정과 결과의 관점에서)이 사회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내었는가?
-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획득에 있어 이러한 사회혁신의 특징들이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는가?
- 왜 이 특징들이 혁신적인가? 다른 접근방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 사회혁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기대되는 타임 라인은 어떤 형태인가?
- 사회혁신이 극복해야 하는 전형적인 과제가 있는가? 이런 과제들은 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한국의 사회혁신 발달을 위하여 현 상태에서 시민, 시민 활동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시장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